



93Page



94Page



95Page



96Page

# 옴

-열두 번째 이야기-

**나 레 이 션** 옛날 동쪽 나라에 옴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. 그에게는 양과 낙타, 소가 수천 마리나 되었고,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.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었어요. 옴은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항상 기도했어요.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렸어요. 어느 날,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 왔어요.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옴을 자랑하셨어요.

**하 나 님** 내가 사랑하는 옴을 보았느냐? 옴은 나를 참 잘 섬긴단다.  
**사 탄** 그것은 하나님께서 옴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렇죠. 옴이 괜히 그러겠어요?  
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옴이 가진 모든 것들을 없애 버리시면 아마 옴도 하나님을 욱할 거예요. 틀림없어요, 하나님.  
**하 나 님** 그래? 그렇다면 옴과 옴이 가진 모든 것을 네 손에 주노라 하지만 절대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.

**나 레 이 션** 하나님은 옴을 믿으셨어요. 사탄은 옴을 괴롭힐 생각에 신이 났어요. 어느 날, 하인이 옴에게 혈레벌떡 뛰어왔어요.  
**하 인 1** 주인님, 나쁜 사람들이 몰려 와서 하인들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.

**옴** 뭐라고?

**나 레 이 션** 그때, 다른 하인이 나타나더니  
**하 인 2** 주인님,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.  
**옴** 하늘에서 불이 내려?? 이거 몰래카메라야??

**나 레 이 션** 잠시 후, 또 하인이 옴에게 달려와서 말하길

**하 인 3** 주인님, 주인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모두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. 흑흑!

**옴** 야, 장난치지마. 너 연기 되게 잘한다. 장난.. 아니야? 진짜야?? 어??? 이.. 이럴수가.....

**나 레 이 션** 옴은 가졌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잃고 말았어요.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. 옴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어요. 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 엎드려 제사를 드렸어요.



97Page

**옴**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. 하나님, 찬송을 받으세요.

**나 레 이 션** 어려움을 당해도 옴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탄은 실망했어요.  
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생각했어요.

**사 탄** 흐흐, 이번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야.

**옴** 옴 으악!! 가려워!! 이게 뭐야!!

**나 레 이 션** 사탄은 옴에게 아주 무서운 병을 주었어요. 옴은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몹시 가려웠어요.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어요. 그러자 그의 아내가 옴에게 말했어요.

**아 내**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벌을 받아 죽는게 낫겠어요.  
이렇게 괴롭게 하시다니....

**옴** 감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다니!  
누구나 복을 받기도 하고, 아플 때도 있는 거요!

**나 레 이 션** 옴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. 옴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세 명의 친구가 옴을 찾아 왔어요. 친구들은 옴이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.

**친 구 들** 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.

**옴**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네

**친 구 들** 고집부리지 말고. 이러다 죽게 생겼네!

**나 레 이 션** 친구들은 옴을 위로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무랐어요. 옴은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. 옴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.

**옴** 하나님, 저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 주세요.

**나 레 이 션**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옴에게 찾아 오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옴의 어려움이 끝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. 옴의 병을 고쳐 주시고,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. 그리고 열 자녀도 주셨어요. 그 후로도 옴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.



98Page